

# 기혼남성의 배우자와의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on Communication  
Among Married Men

성신여자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가족문화소비자학과  
강사 김경자\*

Dept. of Family Culture & Consumer Science, Sungshin Women's University  
Lecturer : Kim, Kyung-Ja

##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논의    |
| III. 연구문제 및 연구 방법 | 참 고 문 헌       |

##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perception of communication efficiency in the couple. The participants were 206 married men in their 30s and 40s who were recruited in Seoul.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participants' reports of family-of-origin, family cohesion, family adaptability and couples' communication were relatively positive. Second, the more positively the participants remembered about their family- of-origin experiences, they perceived their current families as more cohesive and more adaptable. Third, the participants' experiences from family-of-origin, family cohesion, and family adaptability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 with the perception of family communication efficiency.

---

\* 주저자 : 김경자 (jrkjlee@hanmail.net)

**Key Words** : 의사소통(communication), 원가족(family-of-origin), 가족응집성(family cohesion), 가족 적응성(family adaptability)

## I. 서 론

체계이론 및 인지행동주의 그리고 의사소통 이론에 따르면 건강한 가족생활은 가족간의 바람직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고 한다. 이들 이론에서 바람직한 의사소통이란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느낌이나 생각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욕구를 분명하게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의사소통이란 상징적, 상호 거래적 과정 혹은 의미를 창조하고 공유하는 과정으로(Galvin & Bromel, 1986) 의사소통이 잘 되려면 의미의 공유가 커야한다. 많은 연구들(모의회, 김재환, 2002; 장문선, 김영환, 2002; 임승락, 1998; Hahlweg, Revenstorf & Schindler, 1984)에서도 결혼의 질과 결혼의 만족은 의사소통과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또한 임상적인 경험보고서에서도 결혼생활을 만족스럽게 유지하는 가장 큰 변인들은 부부간의 대화방법과 문제해결 능력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해 왔으며 특히 남자의 경우 자신의 감정을 겉으로 표현하는 것이 금기시 되어 왔다. 하지만 급변하는 사회적, 문화적 환경으로 사람들은 솔직하고 능동적인 자기표현을 중요시 하게 되었고, 사회와 가정에서 대인간의 상호작용 능력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면서 의사소통의 유용성이 건강한 사회와 가정의 필수요소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개인이 성장하면서 원 가족에서 경험한 부모와의 관계특성이 일생을 두고 개인의 성장 발달과 대인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라는 것은 가족치료학자들이나 임상 심리학자들 사이에서 인정된 요인이다. 원가족에서의 경험과 관련한 연구들은 원가족의 경험이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또한 원가족의 경험이 성인이 된 후의 결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원인이 되며, 성공적인 결혼의 중요지표가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Stahmann & Hiebert, 1980; 이종원, 2002; 전춘애, 1994; 유은희, 1991; 송성자, 1985; 주디스윌러스타인 외 지음, 양은모, 옮김, 2000).

또한 가족체계 내에서 가족원 상호간에 지니는 심리적·정서적 유대감인 응집성과 가족원 개인이 경험하는 자율성인 적응성은 문제에 대한 빠른 인식과 해결능력을 갖게 한다. 그리고 의사소통 형태와 내용에 따라 가족기능 수행의 정도가 달라 질 수 있으므로, 가족원의 의사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는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Galvin & Brommel, 1986).

가족관계내의 의사소통의 위치는 부부관계와 부모-자녀 관계 그리고 가정전체의 건강한 기능을 위해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행해진 의사소통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주로 의사소통의 유형화, 결혼만족도와와의 관계, 부부의사소통패턴과 우울 및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등과 같이 의사소통의 제 변인의 상관관계의 문제만을 다루었다. 또한 그러한 관계를 이루어나가는 개인의 특성과 관련된 연구는 내외통제성이 결혼관계의 특질에 미치는 영향 정도이며, 이들도 그 대상이 부모-자녀관계 혹은 부부관계 등에 한정되어 있었다(이정순, 1991; 이정은, 이영호,

2000; 전귀연, 구순주, 박경란, 1998; 임승락, 권정혜, 1998; 이정은, 이영호, 2000; 현은민, 1995).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흡한 기혼 남성들을 대상으로 부부간의 의사소통을 알아 본 연구는 아예 없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상담과 가족치료의 입장에서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는 원가족의 경험과 관련한 관점에서 첫째, 개인의 원가족에서의 친밀감과 자율성, 그리고 가족규칙과 관련된 경험이 현재가족의 체계의 지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둘째 원가족에서의 친밀감과 자율성, 그리고 가족규칙과 관련된 경험과 현재가족의 체계의 지각이 부부의 의사소통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하는 것을 연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개인의 경험에 기본적인 틀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원가족에서의 경험과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 그리고 의사소통의 연결고리를 확인함으로써 가족이 좀 더 건강하게 기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며, 특히 미래의 가족에서 좀 더 기능적이기를 기대되는 기혼 남자들의 내재적인 경험 역동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 II. 이론적 배경

### 1. 원가족 경험

#### 1) 원가족의 개념

원가족은 어떤 사람이 정서적, 정신적, 심리적인 삶을 시작한 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Hovestadt, Anderson, Piercy, Cochran, & Fine, 1985)된다.

원가족이 개인의 정서적인 부적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정서적인 부적응을 지속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은 Freud의 초기

저서에서도 언급된 바이다(Piatt & Kettreson, 1993). 이러한 원가족의 경험은 자기 자신과 타인 그리고 대인관계에 관한 중요한 신념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며, 가족성원들이 가족 밖의 대인관계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Bagarozzi & Anderson, 1989; Collins & Read, 1990; Satir, 1988). 그래서 가족치료가인 Satir(1988)는 원가족을 “가족의 청사진이 만들어진 토대”로서 한 개인이 성장하면서 경험한 사건을 새로이 만든 자신의 가족에서 되풀이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원가족(family of origin)이란 한 개인이 태어나면서부터 성장해 오는 동안 사회적, 심리적, 정서적으로 소속감을 가지는 가족으로 결혼한 성인 자녀의 경우에는 결혼을 통하여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기 이전까지 사회적, 심리적, 정서적인 소속감을 가져온 가족을 말한다(이종원, 2002).

원가족의 경험에 관심을 갖는 학자들은 원가족 내에서의 역동적인 경험과 그 가족속의 개인, 그리고 가족전체가 삼각형으로 연결되어 관련이 있다는 것을 가정한다. 즉, 가족간의 상호작용과 적응의 관계적이 패턴이 세대전이 됨으로써 자녀의 사회적 그리고 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Allison & Sabatelli, 1988; Bowen, 1978; Wamboldt & Reiss, 1989; Wilcoxon & Hovestadt, 1985). 또한 이러한 사회적 정서적 발달은 연령에 맞는 자율성과 책임감을 발달시키고 타인과의 관계 맺기의 능력에도 영향을 미친다(Bagarozzi & Anderson, 1989; Napier, 1988, Satir, 1988).

#### 2) 원가족의 자율성과 친밀감, 가족규칙

개인에게 있어 자신의 정체감 또는 자율성을 형성하고 친밀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한 발달과제의 하나이며 이러한 과업은 자신의 원가족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

어진다는 것이 원가족의 이론이며, 자율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건강한 성인을 위한 조건(유은희, 1991)이라면 이러한 자율적이고 친밀감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돕는 것이 가족의 과제라 할 수 있다. 또한 가족 전체로 볼 때도 자율성과 친밀감이 함께 발달하는 것이 가족의 적응력을 높이는 일이기도하다(Lewis, 1986). 이는 가족의 자율성과 친밀감이 가족의 의사소통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Bowen(1978)은 건강한 성숙의 두 주요 과제는 자율성과 친밀감으로 보았다.

가족규칙은 가족치료기법에 의해 가족기능 중 가장 중요한 기능의 하나로 인정되는 것이며, 원가족의 상호작용의 중요한 단면중의 하나가 바로 가족규칙이다(Satir, 1988). 가족규칙은 어떠한 가족만이 갖는 것으로 확립된 고유한 행동에 대한 규범이나 지침으로서 정의된다(Broderick, 1990). 가족은 규칙으로 지배되는 하나의 체계라고 할 수 있으며, 가족 성원들은 그들의 가족 속에서 형성되고 반복되는 방식대로 행동한다. 가족규칙은 가족원간의 경계를 분명히 해 줄 뿐 아니라 가족 의사소통에도 영향을 미치며 가족 내의 친밀감 형성에도 관계가 있다. 의사소통을 촉진하는 가족규칙은 건강한, 혹은 “기능적인” 규칙이며, 역기능적인 가족규칙은 의사소통을 방해한다(Belvins, 1993; Satir, 1988).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원가족의 경험 중 원가족의 자율성과 친밀감, 그리고 가족규칙의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 3) 원가족의 경험과 가족의 응집성·적응성

원가족의 경험과 관련된 연구들은 원가족 내에서의 역동적인 경험과 가족간의 상호작용 패턴이 세대전이 됨으로써 자녀의 사회적 그

리고 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서 결혼생활의 만족과 적응, 그리고 갈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김순기, 2001; 전춘애, 1994; Allison & Sabatelli, 1988; Bowen, 1978; Wamboldt & Reiss, 1989; Wilcoxon & Hovestadt, 1985). Canfield(1983, 김순기 2001에서 재인용)는 원가족에 대해 지각하고 있는 건강수준과 현재의 가족의 건강수준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고, 원가족의 경험과 부부의 결혼유지기간을 연구한 Wilcoxon & Hovestadt(1985)의 연구는 원가족의 경험이 비슷한 부부의 결혼 유지기간이 더 긴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Lewis and Spanier (1980)는 원가족의 부모의 결혼의 질이 높을수록 성인 자녀의 결혼의 질도 높다고 하였다. 원가족의 경험은 성차에 따라서도 다양한 경향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2. 가족의 응집성·적응성

### 1)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

가족체계이론에서 체계는 서로 관련되어거나 연결되어 전체를 구성하는 단위 또는 서로 상호 작용하는 전체로서 정의되며(Olson & Defrain, 2003), 이러한 가족체계적 관점은 가족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여 미래의 상호작용을 예견하며 그 체계 내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는 것을 용이하게 해준다. 예를 들면 부부간의 문제나 가족문제를 다룰 때 상호 영향의 과정을 알고 파악한다면 단순한 ‘원인 찾기’라는 오류를 범하지 않게 된다. 가족 내에 어떤 유형의 규칙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전에는 알지 못했다는 것을 앞으로써 자기가족이 다른 가족과 달라 보이는 것에 대해 편안한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Galvin & Brommel, 1986).

(1) 가족의 응집성

가족응집성은 가족성원간의 유대감을 의미하며 가족체계의 역동성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개념이다. Stierlin(1976)은 응집력 측면을 가족 내에서 작용하는 두 가지 정반대의 힘, 즉 가족성원들을 가족체계 안으로 끌어들이는 구심력과 가족체계 밖으로 밀어내는 원심력 사이의 투쟁으로 나타내었다. 이때 힘의 형태가 한쪽 방향으로만 강력하게 작용할 경우 역기능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가족체계가 효율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이상의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힘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면서 작용해야한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Olson의 가족의 응집성(family cohesion)은 한 개인이 다른 가족성원들에 대해 갖는 정서적인 가까움을 말한다. 가족의 응집성에는 신뢰(trust), 정직(honest), 의존성(dependability), 충성(faithful) 등을 의미하는 가족에의 헌신과 가족이 함께하는 활동에 의도적으로 시간을 할애함, 가족의 정서적인 필요나 생각에 동의함, 가족과 함께 시간 보내는 것을 즐김 등을 의미하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포함된다. 가족응집성은 분리 - 함께함, 나 - 우리의 균형, 가까운 정도, 충성심, 가족활동, 독립-의존 등의 항목에 대해 분리됨, 연결됨, 응집력 있는, 융합된 등의 4가지 수준으로 나뉜다. 가족기능성에 대한 첫 번째 개념으로 가족응집성은 개인이 가족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거나 연결되어 있는 정도로서, 정서적인 유대감(emotional bonding)과 가족 구성원들이 경험하는 개인의 자율성의 정도로서 정의하였다.

(2) 가족의 적응성

가족의 적응성은 가족체계가 얼마나 융통성이 있는지와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의미한다. 이것은 가족의 권력구조

의 역할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결혼이나 가족의 체계의 능력과 상황적인 스트레스와 발달적인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관계적인 규칙의 변화능력을 의미한다(Olson, 1986). 이 차원의 요소는 지도력, 통제, 훈련, 역할, 그리고 규칙 등이다. 적응성 집단은 그 점수가 가장 낮은 수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순서로 경직된 집단(rigid), 구조화 집단(structured), 융통적 집단(flexible), 혼란집단(chaotic)의 4가지 수준으로 분류된다.

복합 순환 모델이 기능적인 가족관계를 곡선적으로 설명하느냐 아니면 직선적으로 설명하느냐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Olson 등(Olson, McCubbin, Barnes, & Larsen, 1983, 김수진, 1997에서 재인용)은 복합 순환 모델의 곡선적 가설을 지지하는 데는 두 가지 예외가 있어야한다고 하였다. 첫째, 가족체계에 관한 문화적·윤리적 규범이 고려되어야한다는 것과 둘째, 정상가족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실제로 극단에 속하는 가족이 매우 제한되므로 가족기능과 가족응집력·적응력의 관계가 곡선적이기 보다는 직선적이라는 것이다. Olson은 가족 내 규범적 기대를 ‘가족이 함께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인지 아니면 ‘가족성원 개인이 하는 것’을 강조하는지의 측면으로 설명하면서, 유태인 가족은 경직되고 밀착된 유형이 정상적인 가족 수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함께 하는 것’을 강조하는 문화라는 설명을 하였다. 이러한 측면은 문화권에 따라 기대되는 규범이 다르므로 응집성에 대한 개념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제안(김명자, 1992; 고승혜, 1985; 김수진, 1997에서 재인용)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이규태(2000)에 의하면 한국가족의 특징은 자기 자신보다 가족의 이익, 화목과 결속을 중히 여기며, 가장의 권위나 가정의 규칙에 엄격한데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Olson &

Lavee (1991, 김수진, 1997에서 재인용))가 일반적인 가정을 연구할 때는 직선적인 가설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도 가족기능체계에 대한 직선적인 가설을 적용하였다.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로는 부모의 교유수준이 높을수록, 아버지가 전문 관리직에 종사할수록(김진희, 1989), 본인의 직업이 관리직·생산직이며 결혼 기간이 짧을수록(김경자, 2004), 생활수준이 높을수록(김순옥, 1990; 이금, 1993),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홍성애, 1988),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김경자, 2004; 김진희, 1993) 가족의 응집성 및 적응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가족의 응집성·적응성과 의사소통

가족 내 가족원들의 관계를 강화시키기도 하고 약화시키기도 하는 매개체 중 가장 중요한 의사소통은 가족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는 가족시스템을 구성하고 이를 유지하며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므로(조은경, 1987),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은 가족의 역동성을 설명하는 개념이며 가족 내에서의 의사소통은 가족의 응집성·적응성과 긴밀한 관계를 갖는다.

가족간의 의사소통,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이 직선적인 관계에 있는 연구들을 보면 Barnes & Olson(1985)은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이 잘 유지되고 있는 가족들의 경우 응집성·적응성·가족 만족 수준이 모두 높다고 하였고, 의사소통은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의 역기능적인 수준에서 기능적인 수준으로의 이동을 쉽게 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Galvin과 Brommel(1986)은 가족 내에서 가족원 상호간에 지니는 심리적·정서적 유대감인 응집성과 가족원 개인이 경험하는 자율성인 적응성은

문제에 대한 빠른 인식과 해결능력을 갖게 하며 의사소통 형태와 내용에 따라 가족기능수행 정도가 달라 질 수 있고 가족원의 의사소통은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Anderson(1986)은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에 균형을 이루는 가족이 지나치게 응집된 가족보다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김진희(1989)는 부모와 자녀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은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이 모두 높은 집단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하였고, 김윤희(1990)는 부모와 자녀의 개방형 의사소통의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의 점수가 높되, 특히 적응성의 점수보다 응집성의 점수가 더 높았으며, 민하영(1990)은 비행청소년의 경우도 가족의 응집성 및 적응성이 가족의 의사소통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박은주·김경신(1995)의 연구에서도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은 개방형 의사소통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즉 가족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은 가족의 응집과 적응 수준과 관련 있다는 공통점을 보고하고 있다.

## 3. 의사소통과 관련된 선행연구 및 변인

부부의 의사소통은 서로 자기 자신을 배우자에게 노출시켜 생각을 주고받는 상호작용으로 이를 통해 자신과 상대방의 역할과 목표를 알게 되며 사랑과 존경을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부부가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경우 서로 친밀감을 느끼고 이해하며 긍정적인 부부관계를 유지시켜 나갈 수 있다.

의사소통은 결혼생활의 만족 혹은 부부적응을 예언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변인으로 보고되어 왔으며(모의회, 김재환, 2002; 송시내, 1999; 임승락, 1998; Hahlweg, Revenstorf

& Schindler, 1984), 장문선·김영환(2002)의 연구에서도 의사소통이 결혼만족도를 가장 많이 설명해 주는 변인이며 특히 상호 건설적 의사소통이 그러하다고 보고하였다. 부부간의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부부는 스트레스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며, 부정적인 감정을 덜 주고받으며 배우자의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메시지를 더 정확하게 알아차린다(Gottman, 1993; Levenson & Gottman, 1988). 또한 부부의 폭력과 결혼 만족 그리고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이종선, 권정혜, 2002)에서는 남편의 요구적 의사소통 유형이 부부의 폭력을 유발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가족 내의 긍정적인 의사소통은 가족간의 행복감을 증진시키지만 부정적인 의사소통은 그 반대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Bienvenu(1970)는 부부간의 의사소통을 효과적인 것과 비효과적인 것으로 구분하면서 효과적인 의사소통 요소로 듣는 태도, 상대를 이해하는 능력, 목소리의 억양, 자신의 표현능력을 들었고, 비효과적인 의사소통 요소로 잔소리, 예의바르지 못한 태도, 정직하지 못한 점을 들었고, Olson, Russell & Sprenkle (1983)은 효과적인 의사소통이란 숙련된 행동이며 학습되는 것으로 부부 모두의 기술수준에 의존되는데, 한쪽이 기술이 부족하거나 기술의 다양성에 결여된다면 다른 한 쪽의 기술수준에 관계없이 의사소통은 붕괴된다고 하였다.

사회인구학적인 변인과 의사소통의 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들이 폐쇄적이고 표현이 적고 실제적인 의사소통을 하며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많이 사용하며, 학력은 의사소통 유형과 관련이 있는 변인(서수경, 이정덕, 1991)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표현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원효종, 1984; Haukins & Ray, 1977). 연령에 따라서는 의사소통과 관련이 없는 것(서수경, 이정덕, 1991)과 연령에 따라 서로 다

른 의사소통 유형을 사용한다는 연구(장문선, 김영환, 2002), 그리고 부인의 연령이 낮을 경우 개방적인 의사소통형으로 의사소통의 효율성이 높다고 한 연구(송말희, 1986) 등 서로 다른 연구결과를 보인다. 남편의 직업은 부부간의 의사소통에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으며(박민숙, 1984), 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의사소통이 개방형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박은주, 김경신, 1995). Haukins, Weinberg & Ray (1980)는 사회계층에 따라 부부간의 의사소통 방법과 내용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하였으나 원효종(1984)는 소득이 부부간의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 상반된 보고가 있다. 결혼연수에 따른 차이를 보면, 이정우, 안동선(1983)은 부부의 결혼지속기간이 길어질수록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며 안정적이 된다고 하였으며, 원효종(1984)도 결혼연수에 따라 의사소통 양식과 정도가 변한다고 하였으나 이정순(1991)은 결혼지속연수와 의사소통과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 III. 연구문제 및 연구 방법

####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개인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원가족의 경험, 가족의 응집성·적응성 그리고 의사소통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개인의 원가족의 경험은 가족의 응집성 및 적응성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가?

<연구문제 3> 개인의 원가족의 경험과 가족의 응집성·적응성에 따라 의사소통은 어떠한 차이를 갖는가?

<연구문제 4> 개인의 일반적인 특성, 원가족의 경험 그리고 가족의 응집력·적응력이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2. 연구방법

### 1) 조사도구의 구성과 내용

#### (1) 원가족의 경험

원가족의 경험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최현미(1997)가 만든 원가족 척도 중에서 '가족의 전반적인 건강성' 요인을 측정하는 짧은 형태의 원가족 척도(the Family-of Origin Scale-16:FOS-16)중 14문항을 선택하여 원가족의 자율성과 친밀감을 알아보았다. 가족규칙을 위해서는 이종원(2002)이 만든 가족규칙 척도 23문항 중에서 본 연구와 관련이 있는 생활규칙과 위계규칙 중 각각 2개의 문항을 선택 포함하여, 총 1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원가족의 경험의 특성은 전체 문항의 총 점수를 사용하여 산출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출생가족의 정서적인 건강수준을 높게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의 문항구성은 자율성(4문항), 친밀감(10문항), 가족규칙(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리커드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 범위는 18점-90점, 신뢰도는 .84 이다.

#### (2)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

가족체계기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Olson, Portner, & Lavee(1985)에 의해 제작된 가족 적응성·응집성 평가척도(FACE III: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s)를 기초로 한 척도와 부부의 의사소통을 알아보는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응집성의 하위척도는 정서적 결속감, 도움과 의논, 가족의 경계, 여가시간 및 친구의 공유, 활동의 공유와 행사참여 등의 5가지이며, 가족 적응성의 하위척도는 지도력, 통제, 훈육, 역할과 규칙 등의 4가지이다. 가족 응집력과 가족 적응력의 문항 수는 각각 10개로 총 20문항이며, '전혀 그

렇지 않다' 1점, '항상 그렇다' 5점의 5점 Likert 방식으로 총 점수의 범위는 10-50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적응력과 응집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가족체계기능은 응집성 10문항, 적응성 8문항의 총 18문항이었으며 점수 분포는 각각 10점-50점이고, 신뢰도는 각각 .60, .77이었다.

#### (3) 의사소통

의사소통 척도는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지의 여부를 판별해 낼 수 있는 척도를 의미하며, 이를 위해 허윤정(1997)의 척도를 기초로 하여 전반적인 부부의 의사소통을 나타내는 문항 6개를 선정하여 본 연구의도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의사소통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Likert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분포는 6점-30점이고, 신뢰도는 .81이다.

###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유자녀 기혼남자로 하였으며, 그들의 첫 자녀 연령이 유치원 이상인 남자로 한정하였다. 본 조사에 앞서 걸쳐 30, 40대의 기혼남자 30명을 대상으로 본 연구자가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본 조사는 자료 수집은 교회, 회사, 은행, 공무원 기관 등을 방문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지는 총 250부가 배부되어 총 206부가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조사대상자는 모두 206명이었으며, 연령은 30대가 123명(59.7%), 40대가 83명(40.3%)였으며, 평균연령은 38.7세(SD.53)였다. 첫 자녀의 연령은 13세 이하가 전체의 76.7%이고 14세 이상이 23.3%로 초등학교 자녀를 경우가 더 많았으며, 첫 자녀의 평균연



령은 9.8세(SD.57)로 자녀를 현재 키우고 있는 핵가족의 역동적 특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학력을 보면 고졸 이하가 19.4%, 대졸 이상이 80.6%로 응답자의 학력은 전체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응답대상자의 연령이 30, 40대 이므로 전체적으로 학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된다. 직업은 사무직(47.1%), 관리직(23.8%)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이 전문직(10.7%), 판매 서비스직(8.7%)의 순서로 나타나, 비 숙련직 보다는 숙련직 이상의 직업 특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수입은 가계의 총수입으로 201만원-400만원 사이가 48.5%로 가장 많고, 400만원 이상이 35.4%로 그 다음, 그리고 200만원 이하가 16%로, 비교적 소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3) 자료의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을 위해 SPSS WIN 10.0 program을 이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원가족의 경험, 가족의 응집성·적응성, 그리고 의사소통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t검증,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고 구체적인 차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사후검증 방법으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원가족 경험, 가족의 응집력과 적응력이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하기 전에 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를 산출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인	분류	N(%)	변인	분류	N(%)
연령	30대	123(59.7%)	학력	고졸이하	40(19.4%)
	40대	83(40.3%)		대졸이상	166(80.6%)
	평균	38.7세(.53)			
첫 자녀 연령	13세 이하	158(76.7%)	월수입	200만원이하	33(16.0%)
	14세 이상	48(23.3%)		400만 이하	100(48.5%)
	평균	9.8세(.57)		401만 이상	73(35.4%)
직업	전문직	22(10.7%)	형제 순위	장남	93(45.1%)
	관리직	49(23.8%)		차남	56(27.2%)
	판매 서비스 직	18(8.7%)		중간자	20(9.7%)
	생산직	15(7.3%)		외동이	5(2.4%)
	사무직	97(47.1%)		막내	28(13.6%)
	주부	2(1.0%)		기타	4(1.9%)
	기타	3(1.5%)			
합계			206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1. 원가족 경험, 가족의 응집성·적응성, 의사소통의 전반적인 경향

조사대상자의 원가족 경험과 가족의 응집성·적응성, 의사소통의 전반적인 경향을 알아 보기위해 각 영역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2>에 제시된 바와 같다.

조사대상자의 원가족 경험의 평균점수는 3.68(SD .46)으로 전반적으로 원가족 경험을 긍정적인 것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원가족 경험, 가족의 응집성·적응성, 의사소통의 전반적인 경향

		M	SD
원가족 경험	상 <sup>1)</sup>	3.93	.32
	중	3.64	.46
	하	3.65	.46
	합계	3.69	.45
응집성	상	3.82	.43
	중	3.81	.42
	하	3.68	.47
	합계	3.77	.45
적응성	상	3.63	.54
	중	3.44	.56
	하	3.39	.45
	합계	3.46	.53
의사소통	상	3.71	.58
	중	3.72	.52
	하	3.48	.69
	합계	3.64	.61

1) 상중하의 구분은 등간척도로 구성된 원가족의 경험척도, 가족의 응집성·적응성 척도를 각각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중심으로 상·중·하의 세 개의 집단으로 나눈 것이다. 모든 변수들의 점수가 높은 상의 집단일 경우 원가족 경험, 응집성, 적응성, 의사소통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며,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도 각각 3.77(SD .45), 3.46(SD.53)으로 가족의 응집성을 적응성보다 약간 높게 지각하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비교적 긍정적인 것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의 경우 평균점수가 3.64(SD.64)로 의사소통은 전반적으로 약간 낮은 것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원가족 경험, 가족의 응집성·적응성, 의사소통의 차이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원가족 경험, 가족의 응집성·적응성, 의사소통의 차이는 <표3>에 제시된 바와 같다.

원가족의 경험은 월수입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 월수입이 비교적 적은 집단(200만원 이하의 집단)일수록 원가족의 경험을 비교적 좋은 것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응성의 경우는 직업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생산직과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이 현재 가족의 적응성이 높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응성이 가족이 얼마나 융통성이 있는 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때 30, 40대의 가장들이 사회경제적인 지위보다는 자신의 일의 종류에 따라 융통성 있는 가족을 꾸려나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의사소통의 경우는 연령과 직업, 첫 자녀의 연령과 월수입 등이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 서로 다른 의사소통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은 이전의 연구(장문선,김영환, 2002)에서도 밝혀진 바이며 첫 아이의 연령이 낮은 것이 의사소통과 관련이 있다는 이전의 연구(박은주,김경신, 1995)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월수입의 경우 400만원 이하의 집단이 그 이상의 집단보

<표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원가족의 경험, 가족의 응집성 및 적응성, 의사소통의 차이

변인	분류(N)	원가족 경험			응집성			적응성			의사소통		
		M	SD	D	M	SD	D	M	SD	D	M	SD	D
연령	30대(123)	3.73	.41		3.82	.42		3.43	.54		3.74	.52	
	40대 (83)	3.63	.51		3.68	.47		3.49	.50		3.47	.69	
	t	1.442			2.142			-.701			2.928**		
첫 자녀 연령	13세이하(158)	3.72	.42		3.83	.40		3.48	.52		3.70	.054	
	14세이상 (48)	3.58	.53		3.55	.50		3.38	.52		3.39	.75	
	t	1.82			3.91			1.07			2.62***		
학력	고졸이하(40)	3.67	.51		3.78	.54		3.56	.62		3.70	.73	
	대졸이상(166)	3.69	.44		3.76	.42		3.43	.50		3.61	.57	
	t	-.32			.20			1.40			.74		
월수입	200만원이하(33)	3.93	.32	A	3.82	.43		3.63	.54		3.71	.58	A
	201~400만원이하(100)	3.64	.46	B	3.81	.42		3.44	.56		3.72	.52	A
	401만원이상 (73)	3.65	.46	B	3.68	.47		3.39	.45		3.48	.69	B
	F	5.56**			1.93			2.48			3.65*		
직업	전문직(22)	3.80	.29		3.82	.54		3.63	.57	AB	3.78	.55	
	관리직(49)	3.62	.44		3.63	.40		3.34	.47	C	3.32	.64	
	판매·서비스직(18)	3.72	.51		3.70	.46		3.48	.33	B	3.71	.48	
	생산직(15)	3.86	.37		3.81	.46		3.78	.59	A	3.68	.63	
	사무직(97)	3.673	.48		3.82	.42		3.40	.52	B	3.74	.56	
	기타(5)	.36	.67		3.75	.70		3.86	.70	A	3.53	.98	
	F	.96			1.36			3.08*			3.66**		
형제 순위	장남( 93 )	3.65	.48		3.73	.44		3.43	.51		3.57	.64	
	차남( 52 )	3.69	.45		3.81	.45		3.55	.52		3.62	.54	
	중간자녀( 20 )	3.80	.45		3.79	.56		3.32	.68		3.75	.57	
	외동이( 5 )	3.63	.18		3.73	.18		3.22	.45		3.90	.74	
	막내( 28 )	3.78	.32		3.79	.35		3.50	.52		3.72	.64	
F	.78			.37			1.67			.84			

\*p <.05 \*\*p <.01 \*\*\*p <.001

다 의사소통이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월수입이 상인 집단의 경우 오히려 가족 내의 상호작용의 기회가 더 적어서 의사소통은 오히려 좀 더 낮은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 3. 원가족의 경험과 가족의 응집성·적응성

원가족의 경험에 따른 가족의 응집성 및 적응성의 차이는 <표4>에 제시된 바와 같다

원가족의 경험은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가족의 응집성의 경우 원가족의 경험이 긍정적인수록 현

<표4> 원가족의 경험에 따른 가족의 응집성 및 적응성

	가족의 응집성			가족의 적응성		
	M	SD	D	M	SD	D
원가족 경험	상 2.32	.54	A	2.35	.56	A
	중 2.05	.50	B	1.97	.48	B
	하 1.67	.54	C	1.78	.55	B
F	11.48***			10.06***		

재가족의 응집성이 더 좋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 적응성의 경우는 원가족의 경험이라고 지각한 집단이 가족의 적응성도 상이라고 답하여 원가족에서의 경험이 가족의 적응과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전 연구(김순기, 2001; 전춘애, 1994; Allison & Sabatelli, 1988; Bowen, 1978; Wamboldt & Reiss, 1989; Wilcoxon & Hovestadt, 1985)를 확인해 주었다.

4. 원가족의 경험, 가족의 응집성 및 적응성에 따른 의사소통의 차이

원가족의 경험, 가족의 응집성 및 적응성에 따른 의사소통의 차이의 결과는 <표5>에 나타나 있다.

원가족의 경험, 가족의 응집성 및 적응성 모두 부부의 의사소통 지각에 강력한 영향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원가족의 경험이 좋을 경우 현재 가족의 부부사이의 의사소통도 원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원가족에서 정서적인 상호작용 패턴이 그대로 전수된다는 이전의 연구(Allison & Sabatelli, 1988; Bowen, 1978; Wamboldt & Reiss, 1989; Wilcoxon & Hovestadt, 1985)를 뒷받침하는 동시에 원가족 경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증명해 주는 결과라 하겠다.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 역시 부부의 의사소통의 긍정적인 지각에 영향을

<표5> 원가족 경험, 가족의 응집성 및 적응성에 따른 의사소통의 차이

		의사소통		
		M	SD	D
원가족 경험	상	4.07	.46	A
	중	3.62	.56	B
	하	3.21	.69	C
F		17.02***		
응집력	상	4.06	.52	A
	중	3.60	.53	B
	하	3.21	.78	C
F		17.35***		
적응력	상	4.05	.49	A
	중	3.60	.57	B
	하	3.33	.67	C
F		11.41***		

미치는 변인으로 가족의 상호작용의 원활함과 융통성이 좋은 것이 그대로 가족 내의 의사소통에 대한 긍정적인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증명해 주는 이전의 결과(김진희, 1989; 김윤희, 1990; 민하영, 1990; 박은주, 김정신, 1995)들과 일치한다.

5.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원가족 경험, 가족의 응집성 및 적응성이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력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원가족 경험, 가족의 응집성 및 적응성이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6>에 나타나 있다.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인들의 설명력은 32%였으며, 그 중 원가족 경험, 가족의 응집성 및 적응성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전체적인 가족에서의 경험이라는 것이다. 즉 원가족에서의 긍정적인 경험과 현재 가족에

<표 6> 의사소통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영향력

변인	의사소통	
	B	$\beta$
연령	-.199	-.160
첫 자녀연령	-0.03	-.021
직업 <sup>1)</sup>	0.003	.002
형제순위 <sup>2)</sup>	-0.03	-.027
교육	-.108	-.070
월수입	-0.07	-.008
원가족 경험	.307	.230**
응집성	.297	.218**
적응성	.236	.205**
Constant	1.106	
F 값	10.385***	
R <sup>2</sup>	.323	

\*p <.05 \*\*p <.01 \*\*\*p <.001

주1) 직업: 전문직, 생산직=1, 나머지=0

주2) 형제순위: 장남, 나머지=0

대한 긍정적인 지각이 곧 현재가족에서의 긍정적인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의사소통으로 결혼생활의 긍정적인 결과를 설명하는 연구(모의희, 김재환, 2002; 임승락, 1998; Hahlweg, Revenstorf & Schindler, 1984)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 V. 결론 및 논의

의사소통은 인간사이의 소통을 위한 기본적인 도구이며 가족생활의 긍정적인 결과를 위해 기본적인 요인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기능적인 가정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기능적인 가정을 만드는 데 주요한 역할을 요구 받는 30,40대 기혼 남성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긍정적인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장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내리고 논의를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대상자의 원가족의 경험은 전반적으로 좋은 편이며, 현재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도 비교적 좋은 것으로 지각하며, 의사소통 수준은 약간 낮은 것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대상자의 평균연령이 38.7세이며 첫 자녀의 평균 연령은 9.8세인 점을 감안하면 가족주기 상 가족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할 때 자신의 원가족에 대한 기억도 긍정적인 것으로 하고 현재의 가족도 긍정적인 것으로 지각하지만 가족 내의 배우자와의 의사소통은 약간 낮은 것으로 지각한다는 결과를 나타냈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관련해서는 원가족의 경험의 경우는 월수입이 낮은 경우 원가족의 경험을 긍정적인 것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금전적인 풍요로움이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우쳐 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본인의 연령이 30대인 경우, 자녀의 연령이 낮은 경우, 그리고 월수입이 낮은 경우 배우자와의 의사소통이 잘된다고 한 결과도 결국 의사소통이 가족의 구조적이거나 지위적인 측면이 아니라 가족 내의 상호작용의 질적 측면에서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는 측면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원가족의 경험은 현재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나타난 것은 원가족의 경험과 현재 가족의 경험이 긍정적인 연관을 갖는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결과로 원가족에서의 경험의 세대 전이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필요로 하는 결과로 보인다.

넷째, 원가족의 경험과 가족의 응집성·적응성은 모두 현재가족에서의 배우자와의 의사소통이 긍정적인 것으로 지각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변인이었다.

본 연구는 원가족의 경험과 현재 가족의

응집성 및 적응성이 가족 내의 배우자와의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원가족의 경험은 현재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의 지각에 정적으로 상관을 갖는 요인이었고, 원가족의 경험과 현재가족의 응집성 적응성은 현재가족에서의 배우자와의 의사소통을 긍정적으로 지각하는데도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대가족기능의 여러 측면 중 강조하고 발달시켜야 할 부분이 바로 가족간의 상호작용의 기회를 늘리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개인이 행복하지 않는 가족은 이제 더 이상 가족으로 남아있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는 그 필요성은 느끼면서도 이제까지 거의 연구가 되지 않았던 남성들의 경험하는 가족과 그 영향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는 연구로 아직도 한국사회에서 지속되고 있는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의 부정적인 영향에서 벗어나 가족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우리의 가족을 도울 수 있는 하나의 실마리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가족 내에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지침의 연구와 남성 다시바라보기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제한점을 제시하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의 연구척도의 한계이다. 본 연구는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하면서 그 한 요인인 원가족의 경험을 가족간의 정서적인 측면과 규칙의 면에 초점을 맞추고 연구를 한바 원가족의 물리적인 환경, 즉 경제적인 측면과 원가족의 부모님과 관계 특성인 부모님과 의사소통 특성이나 부모님의 교육방식에 의한 영향을 포함시키지 못한 제한점을 갖는다. 또한 의사소통 척도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전체적인 의사소통의 정도만 측정한 제한점을 갖는다. 그러므로 추후의 연구에서는 원가족의 경험을 좀 더 전체적으로 파악하기위해서 원가족의 경제적 환경과 부모님과의 관계 특성 등의 요인이 포함되어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의사소통과 관련해서도 의사소통의 여러 특징적인 측면은 세분화하며 볼 필요가 있으며 연구의 대상도 부부를 쌍으로 보는 연구를 한다면 부부사이의 의사소통 유형과 관련해 본다면 좀더 구체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연구가 되리라 사료된다. 또한 기혼남자의 일반적 특성과 관련해서 배우자의 정보(배우자의 연령과 학력 등)의 누락도 추후의 연구에서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 사료된다.

둘째, 본 연구는 기혼남자의 지각을 바탕으로 현재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을 연구하였는데 추후의 연구에서는 부부와 부모-자녀세대를 포함하여 부부체계와 부모-자녀체계를 비교 연구하여 원가족 경험의 세대 전이의 측면을 연구하는 것도 의의가 있다고 본다.

셋째, 본 연구결과 원가족의 경험, 현재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이 모두 배우자와의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결혼관계에 가장 큰 영향요인인 의사소통이 어느 한 순간의 영향이나 어느 한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원가족에서부터의 긍정적인 경험, 그리고 현재 가족에서의 긍정적인 경험 등 인생에 걸친 여러 가지 경험의 결과라는 측면을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결과로 예비부부를 포함한 성인교육에서 의사소통과 관련된 교육의 중요성을 나타낸 결과이며 동시에 부모-자녀관계에서의 의사소통 특성과 의사소통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의 필요성을 나타내는 결과라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1) 고현선 · 지금수(1995). 부부의 갈등 대처 유형이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4), pp.71-83.
- 2) 김정자(2004). 기혼남녀의 원가족 경험과 자아분화가 가족체계기능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대 박사학위논문.
- 3) 김명자(1992). 중년기부부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가족응집력, 적응력 및 복지감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논문집 33, 31-56.
- 4) 김수진(1997). 대학생의 가족체계 유형 및 가족 만족도와 심리적 독립과의 관계.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 5) 김순기(2001). 이혼자녀가 지각하는 원가족의 정서적 건강성과 자아정체감이 결혼후 심리적 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희대 박사학위논문.
- 6) 김순옥(1990). 10대자녀의 부모에 대한 의사소통 개방성과 그 귀인 연구.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 7) 김윤희(1990). 부부관계 · 부모-자녀 의사소통 · 가족기능과 청소년자녀 비행과의 관계연구. 숙대 박사학위논문.
- 8) 김진희(1989). 부모-청소년 자녀간의 의사소통과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과의 관계. 이대 석사 학위논문.
- 9) 모의회 · 김재환(2002). 의사소통과 부부 적응의 관계에 대한 자기 존중감의 매개 효과 한국심리학회지:상담 및 심리치료 14(4), 887-900.
- 10) 민하영(1990). Circumplex Model과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연대 석사학위논문.
- 11) 박민숙(1984). 부부간의 의사소통 효율성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서울시내 거주 하는 주부를 대상으로-이대 석사 학위논문.
- 12) 박은주 · 김정신(1995).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가 지각하는 의사소통 유형과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 대한가정학회지 33(4), 27-38.
- 13) 서수경 · 이정덕(1991). 부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자존감 및 인구 사회학적인 변인간의 상관성에 관한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9(2), 199-215.
- 14) 송말희(1986). 도시부부의 커뮤니케이션 이해도와 결혼만족도간의 관계연구. 숙대 석사학위논문.
- 15) 송성자(1985). 한국 부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가족문제에 관한 연구. 송전대 박사 학위논문.
- 16) 송시내(1999). 결혼생활 만족과 부부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 석사학위논문.
- 17) 원효중(1984). 부부간의 의사소통 양식과 의사소통 불안의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18) 유은희(1991). 기혼자녀의 부모에 대한 애착 및 자율성 발달유형과 결혼 만족도. 이대 박사학위논문
- 19) 이규태(2000). 한국인의 정신문화. 서울: 신원문화사.
- 20) 이금(1993).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의사소통 만족에 관한 연구. 전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1) 이신숙 · 차용은(2000). 성인자녀의 자아분화수준과 원가족에 대한 가족건강도 지각이 노모와의 유대에 미치는 영향. 대한 가정학회지 38(4), 22-32.
- 22) 이정순(1991). 부부간의 커뮤니케이션 유형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 23) 이정우 · 안동선(1983). 도시부부의 커뮤니케이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1). 아

- 세아여성연구 제22집, 215-241.
- 24) 이정은 · 이영호(2000). 개인특성, 스트레스 및 부부간 의사소통과 결혼만족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임상 19(3), 531-548.
  - 25) 이종선 · 권정혜(2002). 부부의 대인관계, 의사소통 방식, 결혼만족도가 부부폭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임상 21(2), 313-330.
  - 26) 이종원(2002). 부부갈등과 관련된 원가족 변인 연구. 연대 석사학위논문.
  - 27) 임승락(1998). 부부간의 의사소통행동과 결혼생활 만족. 고대 석사학위논문.
  - 28) 임승락 · 권정혜(1998). 우울증상이 부부간의 의사소통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17(2), 17-31.
  - 29) 장문선 · 김영환(2002). 부부의사소통패턴과 특징적 갈등대처방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2), 331-347.
  - 30) 전귀연 · 구순주 · 박경란(1998). 부부간의 의사소통 유형이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아동·가족복지 연구 2, 1-23
  - 31) 전춘애(1994). 부부의 자아분화 수준과 출생가족에 대한 정서적 지각이 결혼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이대 박사학위논문.
  - 32) 조은경(1987). 가족의 커뮤니케이션과 권력에 관한 기능적 이론의 접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5(2), 127-144.
  - 33) 주디스 S. 윌러스타인 외, 양은모 옮김 (2000)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이혼은 없다. 서울: 명진출판.
  - 34) 최현미(1997). 원가족척도 연구 -결혼 초기 부부를 중심으로- 이대 박사학위논문.
  - 35) 한미향(2000). 부부의 자아분화와 부부갈등 및 갈등대처 방안과의 관계. 서강대 석사학위논문.
  - 36) 허윤정(1997). 부부관계유형에 따른 결혼만족도 연구. 성신여대 석사학위논문.
  - 37) 현은민(1995). 부부의 성격특성과 결혼만족도. 안동대학교 논문집 제17호, 69-79.
  - 38) 홍성애(1988). 가족환경과 가족체계 상호작용유형이 청년기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대석사학위논문.
  - 39) Anderson, S.A.(1986). Cohesion, Adaptability and Communication: A Test of an Olson Circumplex Model Hypothesis, *Family Relation* 35, 289-293.
  - 40) Allison, M., & Sabatelli, R. A.(1988). Differentiation and individuation as mediators of identity and intimacy in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3,1-6.
  - 41) Bagarozzi, D.A., & Anderson, S. A.,(1989). *Personal, marital family myths: Theoretical formations and clinical strategies*. New York: Guilford Press.
  - 42) Barnes, H., & Olson, D. H.(1985). Parent adolescent communication and circumplex model. *Child Development*, 56, 438-447.
  - 43) Belvins, W.(1993). *Your family, yourself*. Oakland:New Harbinger.
  - 44) Bienvenu, Sr. M.J.(1970). Measurement of Marital Communication, *The Family Coordinator*, 26-31
  - 45) Bowen, M. (1978).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ew York: Jason Aronson.
  - 46) Broderick, C. B.(1990). Family Process Theory. *Fashioning family theory*, 171-206.
  - 47) Collins, N.L., & Read, S. J.(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644-663.



- 48) Galvin, K.M., & Brommel, B.J. (1986). *Family Communication-Cohesion and change (2nd ed)*. Illinois: Scott, Foresman and Company.
- 49) Gottman, J.M. (1993). The role of conflict engagement, escalation, and avoidance in marital interaction: A longitudinal view of five types of coupl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1, 6-15.
- 50) Gottman, J.M., Lavenson, R.W. (1988). *The social Psychophysiology of marriage*. In P. Noller and M. Fitzpatrick (Eds.). *Perspectives on marital interaction*. England: Multilingual Matters.
- 51) Hahlweg, K., Revenstorf D., & Schindler, L. (1984). Effects of behavioral marital therapy of couples' communication and problem-solving skill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2, 553-566.
- 52) Haukins, J.A. & Ray D.W. (1977). Marital Communication & Social Clas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8, 479-490.
- 53) Haukins, J.A. Weinberg C. & Ray D.W. (1980). Spouses Differences in Communication Style : Preference, Perception, Behavio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3). 585-593.
- 54) Hovestadt, A. J., Anderson, W. T., Piercy, F.P., Cochran, S.W., & Fine, M. (1985). A Family- of-Origin Scale.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11(3), 287-297.
- 55) Lewis, J. M. (1986). "Family structure and stress". *Family Process*. 25:235-247.
- 56) Lewis, R.A., & Spanier, G.B. (1980). Marital Quality: A Review of the Sevent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4). 825-839.
- 57) Napier, A. Y. (1988). *The fragile bond: In search of an equal intimate, and enduring marriage*. New York: Harper & Row.
- 58) Olson, D.H. & DeFrain, J. (2003). *Marriages and Families (4th)*. McGraw-Hill.
- 59) Olson, D.H., Russel, C. S., & Sprenkle, D. H. (1983). Circumplex model: VI Theoretical update, *Family Process* 22, 69-83.
- 60) Piatt, Andrea L., Ketterson, Timothy U., (1993). The Relationship of Psychological Adjustment to Perceived Family Functioning Among African- American Adolescents. *Adolescences*, 28(111).
- 61) Satir, V. (1988). *The new peoplemaking*. Mountain View, CA: Science and Behavior Books.
- 62) Stahmann, V., & Hiebert, W.J. (1980). *Premarital Counseling*. Lexington Books.
- 63) Stierlin, H. (1976). *Separating Parents and Adolescents*. New York: Quadrangle.
- 64) Wamboldt, E. S. & Reiss, D. (1989). Defining a family heritage and a new relationship identity: Two central tasks in the making of a marriage. *Family Process*, 28, 317-335.
- 65) Weigel, Daniel J. (2003). A Communication approach to the Construction of Commitment in the Early Years of Marriage: A Qualitative Study. *The Journal of Family Communication*, 3(1), 1-19.
- 66) Wilcoxon, D. S. & Hovestadt, A. J. (1985). Perceived similarity in family of origin experiences and dyadic adjustment: A comparison across years of marriage. *Family Therapy*, 12, 165-173.